

# 세금이란 말조차 모르는 나라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소득의 일부를 무상으로 헌납시키는 소득의 재분배형태인 세금제도는 국가의 발전과 함께 생겨나 수천년을 내리왔다. 이러한 세금제도를 완전히 철폐한 나라는 이 행성에 오직 공화국뿐이다. 피어린 항일대전으로 나라를 찾아 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의 착취적인 식민지조세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 해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확립해주신 새로운 인민적 세금제도는 일제에 의해 혹심하게 파괴된 경제를 하루빨리 복구발전시켜 자립적경제의 토대를 닦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촉진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공화국에서는 국가의 세금수입을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보충적자금원으로 효과있게 쓰는 한편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자립적경제제도대가 닦아지는데 따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었다.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인민적시책이 채택되었고 한층의 자금이 이처럼 귀했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를 30% 낮추고 농민들의 현물세도 대폭 낮추어주는 인민사당의 조치가 취해졌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찾아내 놓으시고 인민을 위한 시책을 베푸신 어버이수령님께서 1960년대중엽부터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후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자립적경제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면서 달라진 사회의 유물인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이것이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도 완전히 없앨때다’고 하여 토의결정하도록 하시었으며 그에 뒤이어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주체63(1974)년 4월 1일부터 공화국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시었다. 법령이 발표되자 세계는 법석 났었다. 《세금을 완전히 없앨때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상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영국학자 토마스 스크트). 《조선에서 세금을 완전히 철폐한 사실은 아주 부러운 일이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미국기자 존 헤이스). 《세금이 없는 나라》, 이것은 인류의 리상이며 희망이다. 조선은 이 리상, 이 희망을 완전히 현실화하였으니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일본 전국공산당체련회 회장 우지다 마사노). 사회주의조선에서의 세금제도 폐지는 20세기 인류사적사변의 하나로 행성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때로부터 수십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

## 불가능한 세금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남조선 잡지 《주간경향》(2022년 1월 3일 호)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만 폐지해도 미친 집값 잡힌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1년 12월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무주택근로자가 서울에서 30평형아파트를 구입하는데 20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30평형아파트값이 2017년 6억 2000만원에서 2021년 11월에는 12억 9000만원으로 두배 폭등했다. 38년간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30평형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실사구시하고 해도 38년간 급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서울가구의 52%에 달하는 무주택가구는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한 내 집값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젊은 세대는 내 집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계속해서 당국이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을 발표해 세제혜택을 확대했고 이 방안이 발표된 직후인 2018년에는 임대주택등록이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

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펼쳐 보였다. 《2020년 7월 30일(KBS) 팩트체크팀이 서울 강남구의 모든 아파트단지의 임대주택등록을 조사해 보도했다. 그에 의하면 개포대청아파트단지는 총 820가구 중 234가구(28.5%), 수서까치마을은 1400가구 중 347가구(24.7%), 우신동아아파트는 1160가구 중 272가구(23.5%)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 강남구 전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는 무려 7944가구였다. 이외에도 7944가구의 약 80%가 2017년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 2017년 12월 당국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정책을 발표하자 다주택보유자들이 보유한 강남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그 결과 강남아파트값이 폭등했다. 2020년 6월말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01만대에 달한다》. 《주간경향》은 또한 당국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주는 세금특혜에 대해 상세히 전하였다. 본시기자



말처럼 함경북도 명간군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던 우리는 이곳에서 남다른 사연을 안고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유숙경, 82살 고령의 나이였지만 그 누구보다 가슴속에 뜨거운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여인이었다. 《동일신문》 기자라는 우리의 소개를 받은 유숙경녀인은 반가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동일을 위해 분투하는 기자선생님들을 만나니 정말 기쁘다.》

알고보니 그는 지금으로부터 59년전인 1963년에 자기 아내와 남조선을 떠나 공화국의 품에 안긴 여인이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남에서 23년, 북에서 근 60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생생한 인생 체험을 접할 수 있었다. 《세월은 류수갈다더니 벌써 60년이 가까와오고있습니... 하지만 내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던 1963년의 그 날들이 어찌일인듯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1963년 당시 유숙경녀인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초고 학생이었다고 한다. 꿈도 많고 희망도 있던 그 시절, 유숙경녀인은 누구에게도 말할 못할 고민으로 온 밤 모래기였다. 3년전 피어린 항쟁에 나섰던 열혈의 청년들의 투쟁모습이 그의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1960년 4월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주의사악통치에서 온래동안 쌓이고쌓여온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그때 유숙경녀인도 동료들과 함께 《백은정치 물러가라!》, 《리승만정권 타도하라!》의 구호를 목청껏 외치며 독재통치에 항거해나섰다. 허나 4.19봉기도 남조선에는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 사회는 또다시 파쇼와 암흑의 천지로 화하고 민생은 더욱 도란에 빠지

게 되었다. 남조선에서는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민주주의가 꽃피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한 지막으로 잊달아있는 북으로 끌려갈 뻔하였다. 어릴적 대학교원이었던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 공화국에는 착취도 억압도 없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살고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가 귀전에 자꾸만 맴돌았다. (가자, 북으로 가자! 이 곳은 근로인민이 주인이 된 참다운 인간세상이다. 내가

이 모든것은 공화국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안아온 꿈같은 현실이었다. 《지금도 두해전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태풍, 폭우, 산사태... 도처에 자연재해가 휩쓸었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TV로 대청리를 찾으면서 경계하는 총비서동지를 뵈옵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물이 모든것을 삼키며 휩쓸어간 대청리의 험악한 감탕바다를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고 헤쳐오신 것이, 흉탄범범이 된 차문을 열고 나서신 그이를 예우하 고 무서운 재난과 불행속에

# 겨레가 안겨줄 행복의 보금자리

— 함경북도 명간군 을 34 인민반 유숙경녀인 —

같은 그 길뿐이다.) 이렇게 되어 그는 1963년 8월 남조선사회와 결별하고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공화국은 인간생존권의 동토대에서 열대도 열고 정에 주었던 나를 따뜻이 품어 주었습니다. 공화국에서 나는 그토록 갈망하였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 다.》 유숙경녀인은 희망대로 상 업일군으로 사업하였고 두 아들은 돈 환분 내지 않고 소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대학 까지 졸업하였다. 특히 어려서부터 수재로 소문난 둘째 아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교육자 로 성장하였다.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희망에 넘친 날들이었다. 공화국에는 집이 없어 한 지에서 자는 로숙자도 없었고 직업이 없어 거리에서 떠도는 실업자도 없었으며 돈이 없는 학교에 못가는 아이들도 없었다. 서로가 위해주고 도와주며 화목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날들은 남조선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

었다. 이 모든것은 공화국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안아온 꿈같은 현실이었다. 《지금도 두해전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태풍, 폭우, 산사태... 도처에 자연재해가 휩쓸었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TV로 대청리를 찾으면서 경계하는 총비서동지를 뵈옵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물이 모든것을 삼키며 휩쓸어간 대청리의 험악한 감탕바다를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고 헤쳐오신 것이, 흉탄범범이 된 차문을 열고 나서신 그이를 예우하 고 무서운 재난과 불행속에 고 어려울 때 더 억센 손길로 인민을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랑과 정이었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사람대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수록 유숙경녀인의 마음속에는 이 좋은 제도에서 부모형제가 다같이 함께 살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욱 올라올랐다.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은 저의 이 열망을 더욱 강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이께서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찬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서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더 높고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뿐이라고 하실 때,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 모두가 무뎠던 가슴이 뜨겁게 뜨거워지고 감동하 하 할 때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 수 없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쟁그리 바치시고도 인민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시는 이런 명도자, 이런 고마운 분이 세상에 어대 계시겠습니까? 남녘에 계시는 저의 어머니, 형제들, 동창생들 아니 우리 온 겨레가 이렇듯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유숙경녀인이 살고 있는 함경북도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부르심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달려온 수도당원사단이 피해지역들에 번듯한 새집, 새 마을들을 일떠세워주는 환한 광경이 펼쳐졌다. 정령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은 북녘에서 살고 있는 유숙경녀인의 가정에도 속속들이 스며들었다. 그의 사랑과 정은 인민이 아플 때 더 마스히 풀어주었

고 어려울 때 더 억센 손길로 인민을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랑과 정이었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사람대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수록 유숙경녀인의 마음속에는 이 좋은 제도에서 부모형제가 다같이 함께 살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욱 올라올랐다.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은 저의 이 열망을 더욱 강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이께서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찬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서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더 높고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뿐이라고 하실 때,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 모두가 무뎠던 가슴이 뜨겁게 뜨거워지고 감동하 하 할 때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 수 없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쟁그리 바치시고도 인민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시는 이런 명도자, 이런 고마운 분이 세상에 어대 계시겠습니까? 남녘에 계시는 저의 어머니, 형제들, 동창생들 아니 우리 온 겨레가 이렇듯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유숙경녀인이 살고 있는 함경북도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부르심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달려온 수도당원사단이 피해지역들에 번듯한 새집, 새 마을들을 일떠세워주는 환한 광경이 펼쳐졌다. 정령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은 북녘에서 살고 있는 유숙경녀인의 가정에도 속속들이 스며들었다. 그의 사랑과 정은 인민이 아플 때 더 마스히 풀어주었

# 역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 땅의 주인으로 되려는 농민들의 오랜 소원을 풀어준 토지개혁

해방직후 북조선의 인구중에서 농민은 거의 80%를 차지하였다. 나라가 해방됨으로써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수탈의 울가미는 벗겨졌지만 오랜 세월 내리온 봉건적억압과 착취의 숨막히는 결박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북조선의 총 농가호수가운데서 4%밖에 안되는 지주계층이 전체농민의 56.7%에 달하는 빈농민들은 경지면

적의 겨우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봉건적토지소유제도가 오래동안 존속되어온 조선에서는 땅에 대한 농민들의 소유관념이 매우 높았다. 농민들은 땅을 못가진 탓으로 지주의 가혹한 착취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땅을 가지고 농사를 마음껏 지어보았으면 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농민들의 이런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토

지개혁을 민주개혁의 선차적 과업으로 내세우셨다. 그이께서는 농촌들에게 나가 시어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후 그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진행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의 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셨다. 이에 기초하여 그이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셨다. 이것은 수수천년 땅을 다루는 농민들을 억압착취해 온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린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공화국에서 농촌문제해결의 빛나는 새 역사를 개척한 거대한 사건이었다. 그이께서는 이어 《토지개혁실시에 대한 립시조치법》과 《토지개혁법령에 대한 세칙》, 《북조선농민은행설립에 관한 법령》들을 제정공포

하도록 하시었다. 토지개혁은 불과 20일 남짓한 사이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결과 일제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 지주들의 토지 100만여정보가 몰수되어 72만여호의 고용농민들과 토지없는 농민, 토지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되었다.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이 땅의 농민들은 봉건적착취관계와 연속에서 해방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땅의 주인으로 되었다. 나라에서 준 땅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표말을 받고 그 땅을 아무런 지대도 없이 줄모르고 감격에 울고웃던 농민들의 모습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 있다. 토지개혁의 기쁨 넘쳐나는 대지우에 울려 퍼진 《밭갈이노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농민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드높은 애국적열정을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한다. 본시기자 림광훈

# 독자문답

## 재종동로 총혜물선생이 제기한 질문

### 조선에서는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군인들을 어떻게 우대해주는가

공화국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과 인민군대에 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을 《영예군인》이라고 부른다. 공화국에서 영예군인들은 국가의 커다란 관심속에 우대를 받으며 생활하고있다. 나라에서는 달마다 영예군인우대금을 지불하는것을 비롯하여 해마다 그들에게 보양값을 주고있으며 그 보

호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돌려주고있다. 영예군인들에게 교정기구와 세바퀴차를 국가부담으로 공급하고있으며 려할 때에 는 차표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편의봉사기관들에서는 영예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봉사해주고 철차다 빠스들에도 영예군인들을 위한 좌석이 따로 있다. 영예군인들이 영예군인학원

을 비롯한 대학, 전문학교 등에서 공부하는 기간에는 교복과 학용품 비롯한 속식 조건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고있다. 영예군인공장과 경로동작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한끼의 영양급식을 보장받으며 입맛이나 날 정도로 영예군인들을 위한 좌석이 따로 있다. 돌볼 사람이 없는 영예군인은 영예군인보양소에서 영

양식사를 공급받으며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생활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온 나라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이 된 공화국에서 영예군인들의 친생의 길동무가 되어주고 일 형태, 친부모가 되어주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계속 발휘되고있다. 이러한 속에 영예군인들 누구나 아무런 권속걱정이 없고 건강하고 밝은 삶을 누려가고있다. 본시기자